고은 불교 대하소설

〈17〉

태 풍

"큰 바람 뒤에야 우리 공부가 제대로 될 것입니다"

난파선이 섬에 닿았다 거의 송장이된 사람 둘이…

새로운 이름을 얻은 만화는 천수만(淺水灣)의 포구에까지 건너가서 몇해동안 쓸 수 있는 헌 배를 구해왔다. 배도 탈 사람이 줄어들어서 버려지는 영락(零落)의 세월이어서 가능했던 것이다. 또한 배에 관한 한 그에게 잘 맡겨진 일이기도 하였다.

일범풍순(一帆風順)이라. 한 쪽의 돛은 어리굴 어촌 안뜸에서 새 것으로 바꿨으니 배를 매어둘 때는 돛만은 떼어다가 암자의 후원에 보관해 두도록 하였다.

정작 그 배를 구해오는 길에 당분간 소용되는 곡식과 갖가지 연장 및 생활용품들도 싣어 왔으니 덜렁 배만 건너온 것도 아니었다.

만화의 임무가 이로부터 무욕도 살림을 자연스럽게 맡게 됨으로써 그의 공부는 우선 절반으로 줄어 들어야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곰보 남처사가 말하기를 "배선장은 선장 노릇을 할 때에도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는데 여기 와서 머리를 깎고도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천상 남의 일에 푹 빠져있게 되었지요"라고 농담을 걸었다.

이런 만화도 여기에 온 이래 버릇 하나가 없어졌다. 아무데나 침 뱉는 일이 그것이다.

웬만한 일에도 꿈틀거리던 그 쐐기 눈썹을 굳이 꿈틀거릴 까닭이 없는 터여서 무욕도는 이같은 만화의 존재에 의해서 한층 더 자연스러워진 것이다. 남처사가 무어라고 말해도 그런 말에 맞서는 것 같지도 않았다. 그런데 해가 서해 수평선에 내려 앉을 무렵 금빛 수평선의 톱날 같은 파도를 바라보던 그가 사뭇 걱정스러운 표정을 숨기지 않는 것이었다.

인담이 그에게 말을 걸었다.

"무슨 일이라도?"

"…"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겠오?"

"며칠 안으로 큰 바람이 불어닥칠 것입니다. 저기 보시오. 저 큰 갈매기들이 잔뜩 겁에 질려 제 새끼들을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큰 바람이라! 큰 바람이라!"

그러나 인담은 더 이상 만화의 걱정에 기울어지지 않았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큰 바람이 분다한들… 큰 바람도 구멍을 뚫어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을… 막다른 데에 이르러서 진짜배기로 나아가는 공부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수행자의 의지가 채워져 있었다.

하지만 우행자는 달랐다.

"큰 바람 뒤에야… 우리 공부가 제대로 될 것입니다. 아니 그 뿐 아니라 새로운 시절이 올 것입니다"

인담은 이런 우녀의 예감에 대해서 그다지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였다. 그는 이 섬의 수행이 가능한 한 조용하기를 바랐던 것이고 비록 다섯사람으로 늘어나기는 했지만 사람들의 자취가 너무 뚜렷한 것을 바라지 않았다.

본디 무욕도는 갈매기의 섬이 아니던가. 갈매기의 섬에 인담이 건너와서 그 갈매기들의 하얀 똥에 익숙해졌고 그 갈매기들의 목에 먹은 것이 걸린 것 같은 울음소리에 묻혀 있는 나날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그런 섬을 우세우세 군림하기 시작한 것이다.

"새로운 시절이 오다니 어떤 시절이겠는가?"

이것이 인담으로서는 도무지 어설프기 짝이없는 낯선 미지(未知)였다. 우녀야말로 그런 미지이기도 한 것이었다.

이러구러 사흘이 지나갔다. 아침 바다는 왠일로 잠들어 있었다. 마치 그 파도드리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것처럼 이따금 섬 기슭의 검은 벼랑을 슬쩍슬쩍 건드리는 것 말고는 다시는 살아날 것 같지 않게 바다의 평면에만 충실하고 있었다.

그때 물 위로 고기 몇마리가 펄쩍 뛰어 올랐다가 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것은 고등어인가? 그것은 가자미인가?

그것이 어떤 고기여도 좋았다. 다만 그 고기가 물 위로 뛰어올라 바라본 세상은 과연 그 고기의 마음 속에서 어떤 세상으로 보였을 것인가.

그 전율(戰慄)의 새로움이야말로 우녀의 눈이 그 고기의 눈과 서로 시선이 부딪친 순간의 눈부신 어둠에 감춰진 어떤 경이(驚異)였던 것이다. 순간은 가장 순수한 전체를 드러낸다.

그날밤 바다 전체에는 바다의 방랑자 혹은 바다의 방황자라 할 부유동물들이 여기저기서 발산하는 인광(燐光)으로 수를 놓고 있었다.

과연 최근 들어 무욕도 부근의 바다 물빛이 약간 달라져 있었다. 초록색을 띠고 있었던 그 초록색 때문인지 고기떼들이 모이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만화는 "이놈의 고기들이… 우리가 잡아먹는 사람들이 아닌 것을 알고 모여드는구나"하고 그 고기떼가 모이는 물에 돌멩이를 던져 놀래주기도 하는 것이었다.

밤이 깊었다. 이제까지 그런 일이 없었던바 캄캄한 바다가 마치 별이 반짝이는 하늘과 같았다. 하늘을 바라보면 거기에도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이런 밤의 축제는 인담으로서도 처음 목격하는 일이었다.

그 밤이 자정을 지난 뒤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동안 함께 잠들었던 바다는 차츰 기지개를 켜면서 파도들을 깨워놓았다.

신새벽에는 벌써 파도가 너훌로 변했고 파도소리를 몰아오는 바람소리도 심상치 않게 거세어졌다.

갈대암자는 워낙 착실하게 동여맨 지붕이어서 끄떡 없었지만 정작 섬곡대기의 움집을 두른 거적 한 겹은 훌쩍 벗겨져서 소나무 가지가 잘려나가는 사나운 바람에 견디기 어려웠다.

새벽 축시(丑時)의 도량송 시간이라 세 남자는 으슬으슬 몸을 일으켰으나 사태가 도량송을 할 정도로 안심할 수 없음을 알아차렸다.

"아래로 내려가 볼 일이요"

하고 만화가 남처사를 데리고 벌써 내려가는 것이었다. 어둠 속이라 내리막길이 더욱 조심스러웠다. 인담도 그들의 뒤를 따라갔다.

그의 입에서 한 마디 낯선 것이 나왔다. "바다를 덮는 큰 기틀(跨海雄基)이라도 이루어진단 말인가. 아니, 하늘에 넘쳐나는 큰 일(彌天大責)이라도 생긴단 말인가. 다 한번 내쉬는 숨결인 것을"

이 말이 나오자마자 그는 휘익! 불어닥친 바람 한 자락에 넘어졌다. 일어나려 했으나 다리 하나가 말을 듣지 않았다. 멀리서 오는 것 같은 통증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윽고 그 통증이 다리 하나를 꽁꽁 묶어놓는 것이었다.

"아아"하고 신음을 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벌써 저 아래로 내려가서 아무런 자취도 없고 오직 세찬 바람소리 뿐이었다.

"어쩌란 말인가"

하고 인담은 신새벽 어둠 속에서 한쪽 다리의 아픔과 함께 주저앉아 있어야 하였다.

그림 · 조향숙

어둠이 사라지는 아침에 이르자 바다는 격렬해졌고 파도는 광란(狂亂)을 멈출 줄 모르게 되었다.

태풍이었다. 선장 출신의 만화가 예감한 큰 바람이 바로 그것이었다. 만화는 먼저 배를 끌어올려 고정시켰고 그 다음으로 갈대암자에 무거운 돌들을 옮겨다 눌러 놓았다.

그때에야 번히 먼동이 텄고 인담이 내려오지 않은 사실에 당황하였다.

"인담스님이 내려오시지 않았어요"

하고 파도소리 한복판에 그의 큰 소리를 박아놓고 그곳을 떠났다.

태풍은 바람만이 아니었다. 성난 소나기같은 빗줄기를 쏟아붓고 있어서 섬의 모든것이 대번에 물벼락을 맞은 것처럼 젖어버렸다. 우녀도 젖을대로 젖어서 그 몸으로 밖에 나올 수 없었다. 만화와 남처사가 꼭대기로 땅바닥에 납짝 늘어붙다싶이 엎드린채 기어 올라갔다. 인담이 거기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었다.

"다리입니까?"

"그렇소. 왼쪽다리가 못쓰게 되었소"

만화가 인담의 다리를 냅다 잡아다녔다. 인담이 입을 딱 벌린채 아무런 소리도 낼 수 없었다. 그렇게 다리를 잡아다니기를 몇번 되풀이한 뒤 인담의 통증이 조금 나아질 수 있었다.

아직 제대로 걸어 다닐 수 없었다.

남처사가 그런 인담을 들쳐 업었다.

그들이 아래로 내려왔을 때는 벌써 저녁나절이 가까웠다. 그동안 다섯사람은 아무것도 입에 댈 겨를이 없었다가 겨우 암자 안에 모여 들어 불안한 음식으로 배를 채웠다.

그때였다. 사나운 짐승의 울음소리와도 같은 파도소리 사이로 어떤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만화가 꼭 닫아 걸어둔 문을 열고 나가 보았다.

가장 난폭한 집중으로서의 자연이 거기 있었다. 자연이 어찌 이렇게도 무서운 것인가. 자연은 언제나 인간을 그 자연에 가장 안온하게 귀의시키지 않았던가.

그런데 이러한 자연을 철저하게 타파해 버리는 이 태풍의 바다는 얼마나 무자비한 것인가.

"저기다!"하고 남처사가 소리쳤다.

섬의 서남쪽 파도더미 위에 난파선임에 틀림없는 것이 나타났다가 그 파도더미에 파묻힌 것이다. 다행인 것은 그것이 파도의 방향을 따라 섬쪽으로 떠밀려오고 있었다.

만화는 여기서도 쓸모 있는 남자였다. 그가 암자 뒤에 간수해 둔 밧줄을 똘똘 말았다가 휘익 내던졌다. 그러나 그것이 파도더미 쪽에 적중하지 않았다.

몇번째 반복하는 동안 만화의 힘도 다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남처사가 한번 밧줄을 던져 보았는데 그 밧줄에 힘이 팽팽히 전해지는 것이었다.

"누군가가 잡았어요!"

"아니면 저쪽에 걸렸어요!"

"… 틀림없이 걸렸어요!"

만화와 남처사가 그 팽팽해진 밧줄을 아주 침착하게 잡아다녔다. 그러자 파도더미에 실컷 묻혀있던 뱃머리가 치켜지며 밧줄에 의해서 다가오고 있었다.

"일중선이로다"

하고 만화가 선장 배만득으로 돌아가서 썩 좋은 그 배를 알아보았다.

섬은 갑자기 바빠졌다. 태풍의 위력이 조금 감소해졌지만 그렇다고 방심할 수 없다. 더 사나운 태풍으로 발전하기 십상이므로.

그 난파선이 섬의 바위너설에 닿았다.

우선 밧줄로 고정시켜 놓은 뒤 만화가 그 배 위로 가까스로 올라가서 배의 밧줄을 던져서 고정시키도록 하였다.

배 안에는 거의 송장이 된 사람 둘이 남겨져 선창 안에 걸려있었다. 그 송장 하나를 들쳐업고 뛰어내렸다. 그러자 남처사도 올라가 나머지 하나를 들쳐업고 뛰어내리는 것이었다.

하나는 만화, 하나는 인담이 말아 뱃속의 물을 토하게 하는 일에 여념이 없었다. 파도소리가 덜 사나워졌다.

아직도! 인도성지 순례를 어렵다고만 생각하십니까

여행번호	방문지	여 행 일 정	요 금
INA-01	인도 10일	불교 4대 성지	150만원
INA-02	인도 30일	인도 전역 자유여행자를 위한 왕복 항공권	
INA-03	인도 12일	방콕-델리-아그라-바라나시-보드가야-라지기르-파트나-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바랄푸르)-럭나우-델리-방콕	180만원 (155만)
INA-04	인도 15일	방콕-델리-아그라-바라나시-보드가야-나지기르-파트나-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산치-아잔타-엘로라-봄베이	210만원 (180만)
INA-05	인도 17일	방콕-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지기르-나란다-파트나-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럭나우-아그라-보팔-산치-잘가온-아잔타-오랑가바드-엘로라-맘마드-봄베이-방콕	230만원 (200만)
INA-06	인도 22일	방콕-카투만드-룸비니-사나울리-기원정사-쿠시나가르-바이샬리-파트나-나란다-라지기르-보드가야-바라나시-상카시아-아그라-델리-보팔-산치-잘가온-아잔타-오랑가바드-엘로라-맘마드-봄베이-콜롬보-아누라다푸라-폴로나누와-시기리아-캔디-방콕-아유타야-홍콩-마카오	280만원 (240만)

올해년도 성실하게 불심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수미산 가족일동-

INDIA
인도관광성
Travelite (India)
인도전문여행사

일 정 표
TOUR DATE : (태국 사찰 순례)

TOUR DATE : 1995. 03. 25-03.30(5박 6일) 동참금 : 60만원

일자	지역	시각	교통편	일 정
제1일 3/25 (토)	서 울 방 콕	17:20 19:25 23:59	KE 637	김포공항 신청사(2청사)2층 외환은행앞 모임 서울 출발 방콕 도착후 호텔 투숙
제2일 3/26 (일)	방 콕 파타야	전일	전용버스	파타야로 이동 안쌍와라람사원 참배후 호텔 투숙
제3일 3/27 (월)	파타야	전일	전용버스	농녹빌리지에서 민속쇼 코끼리쇼 관람, 정원산책 산호섬 일주 및 휴양
제4일 3/28 (화)	파타야 방 콕	전일	전용버스	방콕으로 이동 수상시장, 새벽의사원, 왕궁, 에메랄드사원 등 시내관광
제5일 3/29 (수)	방 콕 아유타야 방 콕	전일	전용버스	아유타야로 이동 아유타야 옛 고적지 참배 방콕 귀환후 공항으로 이동
제6일 3/30 (목)	방 콕 서 울	01:35 08:55	KE 632	방콕 출발 서울 도착후 해산

상기일정은 항공 및 현지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불교성지순례 전문여행사
須彌山
(주) 수미산 여행사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19 원당빌딩 2층
전화 : (02)720-3241~7 / 팩스 : (02)720-3248
국외여행업 등록 제358호

여행번호	방문지	여 행 일 정	요 금	2월	3월	4월
SMR-01	미얀마, 태국 8일	양곤-만달레이-파간-페구-방콕-아유타아(파타야)	129만원	10 21	11 22	5 18
SMR-02	일본 5일	오사까-나라-교또	95만원	17	17	20
SMR-03	일본 6일	동경-나라-교또-오사카	135만원	15	8	22
SMR-04	대만 5일	타이페이-일월담-고웅-불광사	55만원	24	12	20
SMR-05	대만 5일	타이페이-일월담-고웅(불광사)-화련	65만원	24	23	8
SMR-06	태국 6일	방콕-파타야-아유타야	60만원	8	15	21
SMR-07	동남아 3개국8일	홍콩-방콩(아유타야)싱가폴(바탐)	90만원	21	17	10
SMR-08	동남아 4개국10일	방콕-아유타야-브루부둘-홍콩-타이페이(불광사)	155만원	27	19	14
SMR-09	(8박9일) 스리랑카	홍콩-콜롬보-아누라다푸라-폴론나누와-캔디-누와라엘리야(불족산)(페라헤라축제)	140만원	14	9	15
SMR-10	(7박8일) 태국 스리랑카	홍콩-콜롬보-아누라다푸라-하바라나-캔디	108만원	10,21	20	21

*상기 일정중 단체 출발시에는 일정 변경이 가능합니다.
*상기 코스 이외에도 다양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므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